수경 스님 "승가, 일체 권력서 자유로워져야"

'불교평론' 봄호서 불교환경운동 방향 제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비구는 '乞士'…정신은 지켜야
생산 떠남으로 세상과 결속 때문
"승가, 환경문제 책임자에 죽비"
권력 무력한 대중 옆 서는 게 '중도'
"환경운동, 자비로운 삶 위한 기도"

무너져가는 새만금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을 삼보일배했던 '환경보살' 수경 스님이 앞으로 불교환경운동의 방향으로 '보살행으로서 자비로운 삶을 위한 기도'라는 작은 곳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승가에는 "정치와 자본권력에 자유로운 집단이 돼야 한다. 권력에 무력한 대중들의 옆에 서는 것이 중도행"이라는 일침을 내렸다. 지난 2010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모습을 감췄던 수경 스님이기에 사부대중을 위한 스님의 고언이 더 깊이 와닿는다.

수경 스님(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한주)은 〈불교평론〉 봄호(통권 97호)에 특별기고한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를 통해 불교환경운동의 방향성을 제언했다.

기도·가피·공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스스로의 환경운동과 보살행의 과정을 되짚은 수경 스님은 '소욕지족으로 복덕의 가피를 구하는 기도'가 불교환경운동의 정신적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무너져가는 자연 앞에 우리는 작게 살고, 적게 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업(業)과 습(習)으로 인해 그리 살기란 쉽지 않기에, 수경 스님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한주 수경 스님.

'우리'라는 말 뒤에 숨는 국가와 기업

수경 스님은 환경문제가 '공업(共業)'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에 따르면 자가용 운전의 경우 개인이 짓는 불공업이지만, 그것들이 일으킨 오염의 합은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공업이 된다. 수경 스님은 "현대사회에서는 공업과 불공업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면서도 "환경문제의 경우 공업과 불공업이 합해 이뤄진 것이지만, 결과는 모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업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작금의 문제라는 게 수경 스님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당사자인 국가와 기업들이 '우리'라는 말 안으로 숨어버리는 현대사회의 구조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수경 스님은 "(환경문제는) 국가나 기업의 책임에 비하면 각 개인의 몫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우리의 문제로 묶음처리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연대에도 한계가 있다. 매일의 생계가 벅찬 사람들에게 환경운운하는 것도 죄스런 일"이라고 자조하면서도 "그래서 NGO와 종교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 가운데서도 "불교의 출가 수행자 집단인 '승가'가 최적임자"라는 게 수경 스님의 주장이다.

승가가 왜 환경운동의 적임자인가

수경 스님은 왜 한국불교의 승가가 환경운동의 적임자라고 했을까. 비구와 비구니로 이뤄진 승가는 생산에서 멀어진 집단이기 때문이다. 스님에 따르면 출가수행자는 비구(니)라고 하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 'Bhiksu'의 음역으로 의미는 '걸사(乞士)'이다. 일체 생산을 하지 않고 걸식으로 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비구(니)는 "세속과 관계를 끊은 출리적 존재"이다.

이에 수경 스님은 "승가의 출리성은 생산관계로부터 '떠남'으로써 단단해지고, 그것으로써 세상과 강력하게 '결속'된다"며 "비구가 인천사(人天師)로서 세상과 하늘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도리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승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고, 그래야만 한다. 왕이 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고 역설하며 "승가는 공동체성이 붕괴된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개개인을 대신해 죽비를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경 스님은 현재의 승가에 올바른 중도를 행할 것도 주문했다. "모든 승가가 환경운동가가 될 것 없다"고 말한 수경 스님은 "다만, 부처님이 행하신 대로 본분사에 충실하면 된다. 말 못하는 자연의 편에 서는 것, 환경위기에 따른 피해에 취약한 약자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제가 아는 중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자본의 힘 앞에 무력한 대중의 편에서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기꺼워하는(기쁘게 여기는) 것이 승가의 중도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하지 않고 화엄의 사사무애(事事無碍)를 말한다는 것은, 구름 위에 떠올라 어디에도 걸림없이 활보하겠다는 '원대한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의 불교환경운동은…

수경 스님이 말하려는 환경운동의 방향성은 명징하다. '소욕지족을 통한 복덕구족을 지향하는 삶'이다. "물과 공기조차도 자본주의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자발적 가난' 같이 듣기 좋은 고담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아낄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욕지족'을 말하기도 면구하다"고 밝힌 수경 스님은 "말하고 싶은 소욕지족은 알뜰한 삶이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하고, 종이컵을 안 쓰는 것이 방생이라는 인식정도는 하고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경 스님은 "지금의 한국불교는 '거룩함'에 매몰되어 버렸다. '좋은 삶'에서 오는 '복덕'의 가치는 기복으로 오해받아 밀려났고, '지혜'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의해 신비화되어 버렸다"면서 "우리의 삶과 목숨을 알뜰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덕구족'의 삶"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불교환경운동은 복덕구족을 지향하는 좋은 삶, 보살행으로써 자비로운 삶을 위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우리 모두 장금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장 담그는 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3월 6일 관내 장체험관에서 장금이와 함께 장독분양사업 '장 담그는 날'을 진행하며 3월 봄을 시작했다.〈사진〉

참가자들은 자신의 장독에 메주를 조심스레 넣고 장독에 들어찬 메주 위에 소금물을 부었다. 어린이 장금이들은 동요를 부르며 함께 전통장문화를 즐겼다. 2024년 장독분양사업은 4월 중 '장 가르기' 와 11월 중 '장독 비우기' 로 진행되며 완성된 전통 장은 참가자들에게 각각 된장 5kg, 간장 1L씩 나눠질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로터스월드 20주년…문화교류 한마당

4월 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서
로터스월드, 설립 20주년 맞아
한 · 동남아문화 화합의 장 기획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님 자비를 전하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과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로터스월드는 오는 4월 7일 오후 3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로터스월드 설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교류와 협력, 소통을 강화하고 같은 지구공동체 일원으로서 한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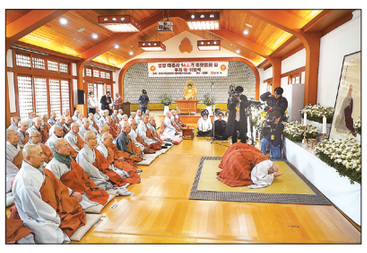
행사는 크게 공연과 전시로 진행된다.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국민이 상대방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전통문화인 △태권도 시범 △국악(박애리 등) △풍물 공연을 비롯해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태국 국립극장 출신 뮤지션의 전통음악 공연 및 중앙국악관현악단 콜라보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와 해피스타트 다문화합창단 공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시는 로터스월드가 동남아국가들과 함께 걸어온 20년의 시간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활동 사진을 시간·공간·사업 분야로 구분해 배치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해 관람객들이 로터스월드의 발자취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한국인과 국내 거주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로서 연대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02-725-4277 이민우 기자

법정 스님 14주기…주지 덕조 스님 취임

3월 6일, 서울 길상사서 추모법회
생전 영상 보며 사부대중 눈시울
덕조 스님 "은사 유지 이어갈 것"



맑고 향기로운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했던 법정 스님의 원적 12주기 기일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는 3월 6일 경내에서 '법정 대종사 14주기 추모법회 및 주지 이취임식'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고자 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또한 맏상좌인 덕조 스님의 주지 취임식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법정 스님과의 추억담을 전하고 "스님은 간소하고 간결한 장례로 떠나시면서까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서 "개인의 청정함으로 사회를 밝혔고 맑고 향기로운 울림을 줬다"고 말했다. 현묵 스님은 이날 주지로 취임하는 법정 스님의 맏상좌 덕조 스님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님은 덕조 스님에게 "사부대중, 큰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길상사가 더욱 맑고 향기로운, 교육과 수행의 실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법정 스님 생전과 다비식 모습이 담긴 영상도 소개됐다. 스승의 모습에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눈시울을 붉히며 마음속에 어른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길상사 주지 이취임식이 봉행됐다. 제10대 주지로 길상사를 이끌어갈 덕조 스님은 "늘 새롭게 시작할 때 마음으로 소임을 보겠다"면서 은사인 법정 스님의 유지를 이어 길상사를 맑고 향기로운 근본도량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법정 스님은 1956년 효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생명 중심 나눔의 삶을 설했던 스님은 맑고 향기로운 사회 구현활동을 통한 순수 시민운동을 주창했다.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세수 78세, 법랍 55세로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인산家 업무협약

3월 5일, 생명나눔 문화확산 힘 모으기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인 불교계 공익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체인 ㈜인산가(대표이사 김윤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월 5일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국내 1위 죽염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인산가와 '국민 건강과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협력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 및 활동사항 홍보 △상호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에 관한 지원 및 협조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인 인산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활동을 함께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윤세 인산가 대표이사는 "경영이념인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인산家는 마늘과 인산죽염을 주원료로 한 마을죽염제품 및 전통 죽염장류 등을 개발해 한국인의 건강을 돕고 있는 자연 지향 건강기업이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인산가가 MOU를 맺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7대 관장에 지웅 스님

27년간 현장서 복지발전 진력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제7대 관장으로 27년의 시간을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진력해온 지웅 스님이 취임했다.〈사진〉

지웅 스님은 3월 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TOP작은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센터가 어르신들에게만 소중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관장이신 희유 스님이 토대를 잘 만들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센터 발전에 대한 소임을 직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직원들을 위한 자기실현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웅 스님은 1998년 승가원강북그룹홈 사회재활교사를 시작으로 승가원장애아동생활시설 원장, 해남군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